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왕단(중국 북경대학교)

### 1. 머리말

언어 교육 연구에서 흔히 교사(teacher)와 학습자(learner), 그리고 교재(materials)를 교육의 3 대 기본 요소로 든다. 그 중에 '교재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곧 교육 과정을 문서 등의 매체로 작성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교육적 도구이다.'(서종학·이미향, 2007:14) 이렇게 교재는 교수·학습 목표 제시, 교수·학습 내용 규정, 교수·학습 방법 제시 그리고 평가의 대상과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지님으로써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를 연계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여러 요건을 조화롭게 매개하여 좋은 교육·학습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교재를 연구할 필요성 역시 언급해야만 한다. 교재 연구는 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 나은 교재를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교재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과거와 현실에서 생긴 교육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성과들이 나와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양질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성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새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 연구 성과를 보면 교재 연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많이 부족하고 '교재 연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교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연구 대상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어 교재 연구의 시대적, 영역적 특징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실시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문제점을 짚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교재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자료의 선정

### 2.1. 연구 대상 자료의 선정 범위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그동안 축적된 이 분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 자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 자료집과 정식 출판된 학회지나 기관지에서 실린 교재 연구에 관한 논문으로 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 학술 교류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학술 연구도 점점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도 중국 내 한국어 관련 학자들과 한국 내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들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더 폭넓고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한국의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한국의 학회지에서 게재된 논문 중에 중국어권 학습자를 상대로 한 교재 연구 성과들도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제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려는 연구 논문들의 출처를 살펴보자. 1997 년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주최한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연토회'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 대회의 효시가 되었다. 1997 년부터 2006 년까지 연 1 회 진행해 온 이 학회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학술 논문집 7 권을 출판하였다. 2001 년 5 월에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중국 한국어(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전국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듬해인 2002 년 10 월 역시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중국 한국어(조선어) 교육연구학회'의 정식 출범과 더불어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해마다 한차례 씩 개최한 이 학회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각 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2003 년부터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록된 논문집이 『한국(조선)어 교육연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고 현재까지 제 7 집까지 나왔다. 2002 년 12 월 중앙민족대학에서 '세계 속의 조선(한국) 언어 문학 교양과 교재 편찬 연구 국제학술토론회'가 개최되어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논문이 10 편정도 발표되었다. 그 후에도 '세계 속의 한국(조선)학 연구 국제학술토론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 이 학회의 주제는 언어, 문학 연구나 언어 비교, 문화 비교 그리고 통, 번역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었다. 이외에 2004 년부터 북경대학 조선언어문화학과는 'Korean 교육 국제 학술 토론회'를 매년 열어 2006 년까지 세 차례의 학회가 개최되었는데, 2009 년부터 북경대학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로의 승격과 더불어 이 학회의 이름을 다시 '한국학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로 바꾸었다. 아울러 학회의 취지를 한국어 교육과 문학, 문화 교육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어, 한국 문학, 한국 문화 교육의 현실을 성찰하고 이 분야 연구의 신 지평을 여는 데 두고, 2010 년까지 두 차례나 개최하였다. 이상에서 소개된 네 개 학회 외에, 중국 내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일부 연구 성과가 한국에서 발표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육 관련 주요 학회지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주요 조사 대상 자료집과 학회지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과 학회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회 학회지 『이중언어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회지 『한국언어문화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기관지 『국어교육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기관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이다. 그리고 기타

학술지에도 이 연구 분야에 관한 성과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몇몇 기타 학술지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회 자료집 및 학회지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학회 자료집 및 학회지<sup>1</sup>

논문집/학회지/기관지	발간 기관/학회	권(호)수
『조선-한국 언어문학교육 학술대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2005)
『중국에서의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I (2000)~VII(2007)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준비위원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2~2010)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1(2003)~5(2007)
『세계 속의 조선(한국)학 연구 국제 학술 토론회 논문집』	중앙민족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조선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2~2008)
『한국학 교육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4~20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2~2008)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89)~19-3(2008)
『한국어 교육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 2, 3(2005)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7(1990)~38(2008)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2(2006)~5-2(2008)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1999)~24(2009)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5-26(2001)~31(2006)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1(2003)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47(2009)
『문법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	6(2007)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9(2007)~13(2009)

<sup>1</sup> 본 연구자는 중국내 교재 연구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관련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과 기타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들 자료 중 몇몇 논문집을 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지속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차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2.2. 연구 대상 자료 목록

본 연구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되거나 발표된 총 18 중, 약 150 권의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집과 학회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고, 그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 성과로 선정된 연구 논문을 모두 추출해 보았는데 교재 연구 관련 논문의 수는 91 편이나 된다. 이들 논문을 몇 개의 하위분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논문에서 다루어진 교재 연구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일부 논문은 그 주제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한 편의 논문에서 교재 분석, 교재 평가, 교재 개발 등 몇 개 연구 영역을 다루고 있어 어느 분야에 넣는 게 정확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게다가 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 이들 연구 성과를 몇 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들을 분류하지 않고 연구 대상 자료에 해당되는 모든 연구 논문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한다.

<표 2> 교재 연구 관련 연구 논문

논문집/학회지/기관지	연도/권호	연구자/논문	편수	계 <sup>2)</sup>
『조선-한국 언어문학교육 학술대회 논문집』	2001/5 차	염광호: 문형교육에서의 교재분석 이은숙*: 고급한국어교재의 <혼불>에 대하여	2	23
	2002/6 차	박재현*: 한국어 교재 발음 단원 구성의 접근방향에 대한 연구 임형재*: 고급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현 사전식 회화교재	2	
	2003/7 차	김경선: 한국어 교육자료의 실태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장영미: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조선)문학사교수와 교재개발	2	
	2005/9 차	김충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개발 현황과 교재특징 왕 단*: 한국어 학습 사전의 문법 정보 기술 방법 연구 이관식*: 북한의 한국어교육 문법교재 분석 연구 조성문: 구어 자료에 근거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기초 어휘 분석 손영걸*: 외국인 교재의 발전에 대하여	5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000/1	안병호: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와 그 개발 방안 이득춘: 중국인용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장광균: 낙양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재	3	
	2001/2	유지동: 멀티미디어 교재를 통한 한국어 교학환경 개선 전정란, 유은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청각 교재의 개발	2	
	2002/3	이은숙: 외국인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재로서의 <혼불> 고찰	1	
	2003/4	박재현: 한국어 교재 발음단원 구성의 접근방향에 대하여 임형재: 고급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현 사전식 회화교재	2	
	2004/5	이상돈: <한국어>(1 권~6 권)의 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1	

<sup>2)</sup> 중국이나 한국의 학회 논문집에서 실린 논문의 일부는 보충, 수정 과정을 거친 후에 국내의 정식 출판 논문집이나 학회지 혹은 기관지에 게재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연구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 동일한 연구자의 수정 후 게재한 논문 한편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 표시가 있는 논문은 논문 편수를 계산할 때 제외할 것이다.

	2005/6	고흥희: 초급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 방안 박숙자: 중국에서의 한국어 기초교재 개발방안 염광호: 한국어 듣기 교재 편찬에 대하여 정미경: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접근 및 방향성 연구 허봉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경어법에 대한 고찰	5	
	2007/7	김석기: 중국의 한국어교육 시기구분과 교재사용 및 연구현황 왕 단(근): 한국어 학습 사전의 문법 정보 기술 방법 연구 이관식: 북한의 한국어교육 문법교재 분석 연구 손영걸: 외국어교재의 발전에 대하여	4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2001/북경	김종태: 과학한국어의 특징과 향후 한국어 교재의 개선방향 서영빈: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 방안 유춘화: 초급 한국어 교과서 편집 소감 이성도: 고학년 한국어(조선어)강독 교재의 개발에 관하여 임종강: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국어교재 문제 주옥파: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교재에 대하여 최순희: 어휘 교육과 한국어 교재 개발	7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2/북경	이 항*: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재 개발 방안	1	28
	2003/위해	강은국: <한국어>(연세대 편)를 교과서로 문법지식을 전수할 때 유의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노금송*: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어휘를 중심으로 신현숙, 이지영: 한국어 교재의 단원명과 단원구성: 1981~2003	3	
	2005/상해	김순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과제-정독교재를 중심으로	1	
	2007/북경	강은국: 종합교재 문법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김홍련: 기초한국어 종합교재의 발음기술에 대한 현황과 과제 마숙향: 중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책에서 나온 발음내용에 대한 고찰 박문자: 한국어학습사전의 구성에 대한 소고 염광호: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정독 교재에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분석	5	
	2008/낙양	조은숙: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문화교육을 위한 통합 교재 연구 방안 염광호: 한국어 정독 교재의 한국문화 내용에 대한 평가 지수용: 중국에서의 한국어 한자교육과 한재교재 개발 방안	3	
	2009/양주	김석기: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1	
	2003/1	이 항: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1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2004/2	노금송: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어휘를 중심으로	1	
	2005/3	최두식: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1	
	2006/4	김순녀*: 한국어 교재에 대한 고찰과 연구	1	
	2007/5	강보유: <초급한국어> 교과서 구성 원리 김성란: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결어미의 기술 방식 김영희: 낙양외대 초급 한국어 교재의 사용에서 느낀 점 김진걸: <표준한국어> 제3 권의 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노금송: 초급 한국어 교재 편찬 방향 여춘연: 낙양외국어대학 현유 한국어 초급 교재에 대한 검토 허봉자: 한국어 교재의 인칭대명사 연구	7	
	2002	강은국: 문법교과서 편찬에서 제기되는 이론 및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1	
『세계속의 조선(한국)학연구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2002	강은국: 문법교과서 편찬에서 제기되는 이론 및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1	15
	2003	강보유: 문법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문법교재 편성방안 김병운: 중국의 현실과 한국어기초교재 교수용참고서 개발방안 리민덕: <고급한국어>교재 편찬에 대하여 이상형: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교육의 내용 장윤희: 한국어사 교재 편찬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장향살: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안 주옥파: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중심의 번역 교재 개발 방안 이은숙: 중국 대학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문화 교육 양상 최미숙: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최정순: 한국어 교수-학습환경과 한국어 교재 최희수: 한국어 교수 및 교재에서 제기되는 문제	14	

		왕 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한국어 발음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영광호: 한국어 문법교재에서 '대우법'서술에 대한 약간의 견해 유춘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의 부사 문제		
	2007	김종태(2007), 한중 번역 교육과 교재 건설	1	
『한국학 교육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4/1 차	이병근: 사전의 역사와 방향	1	5
	2006/2 차	장소원: 한국어 강독 교재 비교 연구 고성환: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2	
	2006/3 차	왕 단: 한국어 학습사전의 의미 정보 기술 방법 연구	1	
	2009/1'차	왕 단: 중국의 한국어 교재 발음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2004/14 차	김병운: 한국어 교육 자료의 새로운 방향 김정우*: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학습자의 요구 분석 연구 손정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 왕 단(-):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4	8
	2007/17 차	왕 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재의 구성과 기술 방법 연구	1	
『한국어 교육』	1997/9-1	리득춘: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한국어 교재의 토사용 비교	1	1
	2006/16-1	김정우: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연구	1	
	2007/18-1	엄 녀: 평가 기준을 통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	1	
	2008/19-3	김정우: 중국의 한국어 초급 교재 비교 연구	1	
『한국어교육론』	2005/1	손정일: 중국의 한국어 교재	1	
『이중언어학』	1990/7	배희임: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 연구	1	2
	2004-26	왕 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 발음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	
『한국언어문화학』	2006/3-2	최윤곤: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1	2
	2007/4-2	왕 단(-):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형용사 의미 정보 기술 방법 연구	1	
『국어교육연구』	1999/6	이선한: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	1	4
	2000/7	장광근: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와 그 개발 방안 충천부: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	
『선청어문』	2003/31	김순녀: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과제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	2006/31	이광재: 중국 내 대학생용 한국문학교재 개발 연구	1	1
『문법 교육』	2007/6	김경화: 중국에서의 초급한국어교재 문법항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1
『국제어문』	2009/47	손세모들: 중국 출간 한국어교재의 화용론적 오류 분석	1	1
『Journal of Korean Culture』	2009/13	남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교재 편찬 연구	1	1
학회지/기관지/논문집:19 종	총 조사 권수:155 권, 교재 연구가 게재하는 권수: 48 권		10 3	91

### 3. 한국어 교재 연구의 주된 흐름과 특징

본 연구의 2 장에서는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 출판되거나 발표된 교재 연구 관련 논문을 고찰해 보았고 총 91 편이나 된 논문을 게재된 자료집, 학회지 그리고 기관지별로 정리해 보았다. 수록된 논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그 동안 진행해 온 교재 연구의 주된 흐름과 전체적으로 볼 때의 그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연구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어 교육 연구 성과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온 교재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45년에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의 전신인 동방언어전문학교 한국어과를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어 초창기(1945년~1972년), 침체기(1972년~1992년), 도약기(1992년~2002년)를 거쳐 지금 현재 안정적인 성장기(2002년~현재)에 이르고 볼 수 있다.(왕단, 2008)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지 65년이나 되었지만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는 1990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하지만, 1990년에 배희임의 논문 발표 이후 약 10년 간 교재 연구 관련 성과물은 찾을 수가 없다. 결국 1990년대 말에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10년 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91편의 논문이 나온다는 사실은 한국어 교재 연구가 한국어 교육의 다른 연구 분야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한국어 교재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해 한국어 교재 연구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어 관련 교재가 그 수치가 통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교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교재 개발은 교재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기초로 행해져야 되는데, 교재 연구는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교재 연구는 주로 중국 각 대학교 한국어 교육자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지 않은 한국 학자들도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 활동에 동참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존 연구 성과를 보면 한국 학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91편의 교재 연구 관련 논문 중에 한국 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30편이나 되고 전체 연구 성과 중에 33%, 즉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 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교육 교류의 발전에 따라 많은 한국어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중국에서 교육,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중국의 한국어 교육 학회에 참가한 결과이기도 하고 한국 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의 팽창으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원인으로 귀결할 수 있기도 한다. 한국 학자들은 연구 분야의 확대와 새로운 연구 방법과 연구 시각의 도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었고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연구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교재 연구 논문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총론적인 접근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전체 연구 흐름을 보면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에서 교재 분석이나 교재 평가 그리고 학습자 요구 조사 등 세부적인 연구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가 보인다.

한국어 교재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안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연구 성과 중에 22편, 24.2%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들 논문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중국의 기존 한국어 교재의 체계, 내용 등을 평가하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교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교재 연구의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재 연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연구가 아닌 전체적인 한국어 교재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분야의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시작 단계인 2000 년 전후에 많이 집중되었고 교재 연구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2000 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 수치로 보면 2005 년을 그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에 20 편이 나왔으나, 그 후에는 2 편만이 나왔고, 대신 교재 분석이나 평가, 그리고 교재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고 있다.

넷째, 교재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연구 주제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체계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연구는 시작 초기에 비해 발전적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재에 대한 총론적인 접근, 교재 개발 방안 제시 등 몇 개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연구 주제는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그리고 설사 학습자 요구 분석이나 교재 개발 원리 제시, 그리고 교재의 활용 방안 등을 다루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또는 기존 연구를 보면 일부의 연구 성과들은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교재의 내용 구성이나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일종의 교재 사용 소감이나 경험담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재의 분석 절차나 평가 기준을 채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온 교재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도 그 객관성, 과학성, 그리고 체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섯째, 교재 연구는 교재 개발에 너무 쏠려 있어 교재 연구의 목적은 오직 새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만 있다는 인상을 안겨 준다.

교재 연구 성과를 보면 91 편 논문 중에 주제를 '교재 개발'로 설정한 논문은 무려 54 편이나 되어 전체 교재 연구 논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9.3%나 된다. 이 현상은 교재 관련 연구가 결국 교재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사고에 기인한다. 물론 교재 연구를 교재 개발에 직결하여 인식할 만큼 보다 더 발전된 교재 개발을 위한 것은 교재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교재 연구는 교재 개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교재 연구는 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고 이를 각 현장에서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는 데 반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선정된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 연구의 기본 목적이 되어야 한다.(서종학·이미향, 2007: 258) 따라서 교재 연구자들이 교재 개발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기존 교재에 대한 비교나 평가, 그리고 교재의 활용 방법 등의 연구 분야로 관심을 넓히는 것이 현재의 당면 과제이다.

여섯째, 기존 교재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교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교재 연구의 새로운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 소위 '교재 연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91 편이나 되는 연구 대상 논문 중에 교재 연구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는 단 한 편도 찾지 못했다. 설사 엄녀(2007: 234~235), 손정일(2005: 241) 등과 같이 교재 연구 논문에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교재 연구의 현황을 간단하게 논의한 논문도 있으나 이들 논문의 최종 목적이 기존 교재 연구를 평가하고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시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교재 연구 성과에 대한 세밀한 정리나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재 연구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교재 연구를 단지 교재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하고 그것 자체가 학문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동안 실시해 온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주요 동향이나 특징을 간략하게 추려해 본 것이다. 각 영역의 더 세부적인 연구 현황에 대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 영역별로 본 교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재 연구의 현주소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교재 연구 성과를 몇 개의 하위분류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려면 우선 교재 연구의 하위분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민현식(2000)은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들에 대해 전면적,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한국어 교재론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그의 하위 분과를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민현식, 2000: 7)

한국어 교재론 연구:

교재 유형론 연구: 교육과정과 교재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교재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연구한다.

교재 개발론 연구: 교재 개발에 따른 제반 방법론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교재 평가론 연구: 교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실에 비추어 한국어 교재 연구를 '교재 유형론 연구', '교재 개발론 연구', '교재 평가론 연구'로 나누어 그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3</sup>

---

<sup>3</sup> 기실 '교재 내용론 연구'와 '교재 활용론 연구'도 함께 다루면 좋겠지만 전자는 교육 내용 연구에 가깝고 후자는 교수법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지면 제한으로 인해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 4.1. 교재 유형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습목표, 학습수준, 교수요목, 학습 목적, 학습 대상자, 출판 장소 등의 변인에 따라 한국어 교재는 여러 가지로 나뉜다. 교육과정, 교수요목과 교재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편찬된 다양한 종류의 교재를 연구하는 분야를 교재 유형론이라 한다.

학자에 따라 교재의 분류 기준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르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재 분류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

<p>민현식(2000: 8~11)</p> <p>학습 과정 유형: 국외 과정-정규 과정(대학 학위 과정, 제2 외국어 과정, 한국 학교)</p> <p style="padding-left: 40px;">비정규 과정(전문가 양성 과정, 교양 과정, 민간 학원 과정)</p> <p style="padding-left: 80px;">국내 과정-정규 과정(대학 정류 과정)/비정규과정(단기 과정, 민간 학원 과정)</p> <p>교재 개발에서의 학습자 상황 요인: 학습자 수준별, 학습 목적별, 수강 기산별, 연령별, 국적별</p> <p>그 외: 제시 자료 유형에 따른 유형-자연 자료, 인공 자료, 감각 기관별 교재, 언어 범주별 교재,</p> <p style="padding-left: 40px;">언어 기능별 교재,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교재, 한국어 교육 관련 영역별 교재</p>
<p>박영순(2003: 171)</p> <p>영역별: 회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문화, 어휘 // 지역별: 한국, 일본, 중국, 북미 등</p> <p>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기타 // 수준별: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한국학 전공</p> <p>성격별: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용, 자습용, 교사용, 인터넷용 // 위상별: 주교재용 부교재용 과제용 평가용 워크북</p> <p>목적별(기능별): 관광용, 교양용, 대학학습용, 어린이용 등 // 언어권별: 영어권, 중어권, 일어권, 불어권 등</p>
<p>이지영(2004: 2)</p> <p>시기: 편찬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 // 대상: 해외 동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p> <p>저자: 대학 기관 발행 교재, 생활회화/관광용 교재 // 학습 기관: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p> <p>학습자 언어: 교육 기관에서 직접 그 나라 언어로 편찬한 교재, 한국어 교재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교재</p> <p>목적: 영역/기능-회화교재, 듣기교재, 읽기교재, 쓰기교재, 문법교재, 문화교재, 통합교재(읽기/쓰기, 말하기/듣기)</p> <p style="padding-left: 40px;">언어 교수법-문형 중심 교수법 교재, 과제 중심 교재</p>

이상의 논의와 기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재 연구의 유형을 크게 학습자 수준별, 언어 기능별, 언어 범주별, 지식

영역별, 교재 위상별로 나누고 각 분류별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다음 <표 4>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4</sup>

<표 4> 교재 유형론 연구 성과 목록<sup>5</sup>

분류	하위 분류 및 대표적 연구 성과
학습자 수준별 연구	초급: 조성문(2005), 고희희(2005), 박숙자(2005), 김홍련(2007), 강보유(2007), 노금송(2007), 강보유(2007), 김영희(2007), 여춘연(2007), 이은숙(2003), 김정우(2008), 김경화(2007) 중급: 김진걸(2007) 고급: 이은숙(2001), 임형재(2002), 이성도(2001), 리민덕(2003)
언어 범주별 연구	발음 교재: 이항(2003), 왕단(2004 ㄴ) 어휘 교재/학습 사전: 왕단(2004 ㄱ, 2007 ㄱ, 2007 ㄴ), 박문자(2007), 이병근(2004), 지수용(2008) 문법 교재: 주옥파(2001), 이관식(2007), 강은국(2002), 강보유(2003), 염광호(2003), 왕단(2007 ㄴ)
언어 기능별 연구	듣기 교재/시청각 교재: 전정란·유은종(2001), 염광호(2005) 읽기 교재: 회화 교재: 임형재(2002) 쓰기 교재: 고희희(2005) 번역 교재: 주옥파(2003), 김종태(2007)
지식 영역별 연구	한국 문학 교재: 장영미(2003), 서영빈(2001), 이광재(2006), 남연(2009) 한국 역사 교재: 한국 문화 교재:
교재 위상별 연구	주교재: 기존 연구는 거의 다 주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교재(워크북, 언어 자료, 시청각 자료, 인터넷 등): 전정란·유은종(2001), 유지동(2001) 교사용 지침서: 김병운(2003)

이상의 <표 4>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 교재 유형론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구의 불균형이라 할 수 있겠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유형론 연구는 주로 학습 수준별 교재, 즉 범용 교재 연구에 치중했을 뿐 다른 언어 범주별 교재라든가 언어 기능별 교재라든가 지식 영역별 교재 등에 대해 연구가 아주 미약하다.

둘째, 교재 연구의 불균형은 각 분류 내에서도 존재한다.

① 학습자 수준별 교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급 교재에 집중되어 있고, 고급 교재, 특히 중급 교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교재 개발은

<sup>4</sup> 선행 연구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고찰해 보면 그 양상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술했듯이 하나의 기준으로 이들 논문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교재 유형론 연구'에 속한 논문도 그 하위분류 기준에 따라 한 번만 나올 수 있고 한 번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재 연구' 논문이라면 '학습자 수준별 연구'와 '언어 범주별 연구' 두 개 항목에 모두 나올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기존 교재 연구 성과를 '유형론', '개발론', '평가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 한 번만 나올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이상 나올 경우도 있다.

<sup>5</sup> <표 4>의 일부 항목의 경우, 해당되는 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을 열거한 것은 독자들이 어느 분야에 연구의 허점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초급 교재에 집중되어 있어 중급, 고급 교재 자체가 양적으로 너무 적다는 현실에 직결된다.

② 언어 범주별 교재에 대한 연구를 보면 문법 교재를 분석하거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발음 교재에 관한 논문은 두 편 밖에 없다. 어휘 교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습 사전에 대하여 진행되어 왔지만 그 중 이병근(2004)은 사전의 역사와 편찬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연구를 했고, 진정한 의미의 학습 사전 연구는 왕단(2004 ㄱ, 2007 ㄱ, 2007 ㄴ), 박문자(2007) 밖에 없다. 지수용(2008)은 학습자들의 어휘량을 늘이기 위해 한자 교재 편찬의 중요성이나 한자 교재의 구성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한자 교재를 편찬하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지만 학습 사전이나 한자 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역시 많이 부족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나 학습자들이 학습 사전에 대한 의지도 등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소홀하다.

③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듣기(聽力, 視聽), 말하기(會話, 口語), 쓰기(作文, 寫作), 읽기(名篇選讀, 報刊選讀), 번역하기(翻譯, 筆譯, 口譯) 등 언어 기능별 교과목이 예외 없이 있지만 이런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연구는 단 6편뿐이다. 이런 현상의 발생은 물론 기능별 교육 연구에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지만 기능별 교재 개발의 부족으로 귀결할 수도 있다.

④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약간 차이가 보이지만 중국내 한국어학과에서의 학습자 양성 목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어 인재'로 규명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한국어학과에서 거의 모두 다 '한국 문학', '한국 문학사', '한국 문화' 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화 교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럴 경우 마땅히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학, 역사, 문화 교재를 개발해야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교재에 대한 연구 또한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상태이다. 문학 교재에 대한 연구는 장영미(2003), 서영빈(2001), 이광재(2006), 남연(2009) 등 몇 편 논문이 있지만 역사나 문화 교재 관련 연구는 단 한 편도 찾지 못했다. 설사 한국 문학 작품이나 한국 문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초 교재의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 문학 교육 혹은 문화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⑤ 지금까지 해 온 교재 연구는 거의 모두 주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교재에 대한 연구는 2001 년에 발표된 전정량·유은종(2001), 유지동(2001) 두 편 밖에 없었는데 그 후 약 10 년의 세월이 흘러도 부교재에 대한 연구는 전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와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교재의 개념이 많이 확대되었고 교재의 종류도 많이 다양해졌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에 대한 연구는 김병운(2003) 한 편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 시중에 나온 부교재나 교사 지침서의 양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분석, 평가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교재가 너무 적다는 데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교재 연구를 시작하지 10 년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주교재에 대한 연구도 바쁘는데, 부교재나 교사 지침서까지 연구할 겨를은 아직 없다는 이유도 제기될 만하다. 효과 있고 수준 있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려면 결국 주교재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학습 변인과 교수 변인에 따른 다양한 부교재의 개발이 시급하고 부교재 개발에 앞서 그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교재 유형론 연구를 몇 개의 하위분류로 나누어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재 유형론 연구는 아직 까지 미약하고 시급히 보완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수준별 교재 연구에 초급 교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행해야 하나 전에 소홀히 다루었던 중급과 고급 교재 연구에 더 많은 연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학습자 수준의 지속적 향상에 부응하는 현실적 요구이기도 하다.

둘째, 언어 범주별 교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별 연구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지만 시중에 발음 교재, 문법 교재 그리고 어휘집이나 학습 사전 등이 속속 나온 현실을 생각하면 이 분야의 연구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언어 기능별 교재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므로 교재 연구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요구에 잘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듣기 교재, 회화 교재, 쓰기 교재, 읽기 교재 그리고 번역 교재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과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었으나 아직까지 문학, 문화 관련 교재가 그리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 요구에 대한 조사, 기존 관련 교재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 역사, 문학 교재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재 연구가 기대된다.

다섯째, 한국어 교육이 이미 일정한 축적이 있고 기초 교재의 개발도 실제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 지금, 연구의 중심이 더 이상 주교재에만 쏠려 있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워크북, 테이프, CD, DVD, 멀티미디어 자료, 교육용 사진, 그림, 실물 등 부교재나 교구의 개발과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교재 개발은 아무 연구도 없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교재나 교사 지침서의 개발 원리,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실정을 비추어 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원격 교육 교재에 대한 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 4.2. 교재 평가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종학(2001)은 교재 분석을 '교재를 연구하거나 선정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과정적 행위', 교재 평가를 '교재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 행위'로 이 두 용어를 규정한다. (서종학·이미향, 2007: 141 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교재 분석과 교재 평가를 통틀어 교재 평가론 연구라 칭하기로 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평가론 연구 논문은 총 32 편으로, 연구 성과 목록 중의 35.2%를 차지하는데, 그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표 5>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 5> 교재 평가론 연구 성과 목록

분류	대표적 연구 성과
교재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평가	노금송(2007), 장광군(2000), 이상돈(2004), 최두식(2005), 김진걸(2007), 장윤희(2003), 엄녀(2009)
교재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발음: 마숙향(2007), 왕단(2009), 김홍련(2007), 어휘: 조성문(2005), 노금송(2004), 고성환(2006) 문법: 리득춘(1997), 허봉자(2007), 염광호(2001, 2003, 2007), 김성란(2007), 유춘희(2003), 김경화(2007) 문화: 염광호(2008), 이삼형(2003), 이은숙(2003), 조은숙(2008) 교재의 단원명, 단원 구성: 신현숙·이지영(2003) 화용론적 오류: 손세모듈(2009)
교재 비교 연구	이관식(2007), 장소원(2006), 김정우(2008), 왕단(2004), 장향실(2003)

이상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어 교재 평가론 연구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재 평가론 연구는 교재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나 평가,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교재의 비교 분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둘째, 물론 이 분야의 연구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논문을 분석해 보면 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다른 두 영역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고 향후 교재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염광호(2008), 이삼형(2003), 이은숙(2003), 조은숙(2008)은 한국어 기초 교재의 문화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문화 교육의 새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현숙·이지영(2003)은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 150여 권의 단원명과 단원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구축한 정보는 한국어 교재의 변천 과정과 역사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손세모듈(2009)은 중국에서 출간된 13종 한국어 교재의 회화 본문을 대상으로 호칭과 지칭, 격식체와 비격식체 혼용을 대상으로 고정 함축 관련 오류를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은 학습자들이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알고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꼭 진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현황 분석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더 다양한 관련 연구의 진행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33페이지의 분량으로 중국에서 나온 세 가지의 기초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보다 바람직한 교재 개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한 김정우(2008)와 기존의 교재 분석,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어권이라는 특수 언어 환경을 고려한 교재 분석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교재에 대한 분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엄녀(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셋째, 이상의 몇몇 심도 있는 논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연구 역시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중 특징적인 문제의 하나는 바로 교재 분석, 평가의 기준이나 항목, 그리고 분석, 평가에 대한 사전 연구 없이 선정된 교재를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연구는 체계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교재 분석과 평가는 좋은 교재를 편찬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한국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영역의 연구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교재 분석은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 교재 구성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교재 내용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연구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교재 분석, 평가를 하기 전에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징과 교육 환경 등 학습 변인과 교수 변인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 원칙,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

셋째, 중국내 한국어 교재가 너무 다양하고 교재의 질도 천차만별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재의 선택 기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교재 선택을 직면해야 할 한국어 교육자와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어 교재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교재 평가는 한국어 교육 연구자에 의해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교재에 대한 평가도 수집하고 연구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 4.3. 교재 개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 교재 연구는 더 나은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재 개발에 따른 제반 방법론과 문제점을 연구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론 연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교재 개발론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 개발론 연구 성과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역에 관한 54 편 논문을 '총론적 연구', '유형별 교재 개발 연구'와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로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유형별 연구'는 다시 학습자 수준별 교재 개발 연구, 언어 범주별 교재 개발 연구, 언어 기능별 교재 개발 연구, 지식 영역별 교재 개발 연구, 교재 위상별 교재 개발 연구로 분류하고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는 다시 학습자 요구 분석 연구, 교재 구성 방안 연구, 교재 내용 기술 방법 연구, 교재 개발과 사용 소감 소개 등으로 교재 개발 절차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물을 다음 <표 5>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sup>6</sup>

<sup>6</sup>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는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을 감안하여 교재의 사용자인 학습자에 대한 요구 조사로부터 교재 구성 방안 연구, 교재 내용 연구, 교재 내용 기술 방법 연구,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의 사용 소감 소개까지 여러 분류를 포함한다. 그 중 '교재 내용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이어서 '교재 평가론 연구' 부분에서도 논의가 있고, 대부분의

<표 6> 교재 개발론 연구 성과 목록

분류	대표적 연구 성과
총론적 연구	김경선(2003), 김충실(2003), 안병호(2000), 이득춘(2000), 장미경(2005), 손영걸(2007), 김종태(2001), 최미숙(2003), 김병운(2004), 이선한(1999), 장광군(2000), 증천부(2000), 김순녀(2003)
유형별 교재	학습자 수준별 교재: 장영미(2003), 장광군(2000), 박숙자(2005), 이성도(2001), 최순희(2001), 노금송(2004, 2007), 리민덕(2003), 장항실(2003), 최윤곤(2006), 조은숙(2008)
	언어 범주별 교재: 이향(2003), 주옥파(2001), 강보유(2003), 왕단(2006), 지수용(2008)
개발 연구	언어 기능별 교재: 전정란·유은중(2001), 임형재(2003), 염광호(2005), 김석기(2009), 고희희(2005), 김종태(2007), 주옥파(2003)
	지식 영역별 교재: 서영빈(2001), 남연(2008), 이광재(2006), 장영미(2003)
	교재 위상별 교재: 김병운(2004)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	학습자 요구 분석: 김정우(2004)
	교재 구성 방안: 박재현(2003), 박문자(2007), 강보유(2007)
	내용 기술 방법: 왕단(2004, 2007 ㄱ, 2007 ㄴ, 2009), 김홍련(2007), 김성란(2007), 고성환(2006)
	개발, 사용 소감: 유춘희(2003), 김영희(2007)

교재 개발론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영역의 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3 장에서 전술했듯이 교재론 관련 연구 논문 91 편중에 교재 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은 무려 54 편이나 되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 중에 총론적 연구는 13 편이나 되어 이 영역 연구 성과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2005 년 전의 연구이다.

둘째, 교재 개발론 연구 성과는 교재 연구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만 각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편수를 볼 때 역시 미약하다. 이 양상은 위의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셋째, 보다 양질의 교재를 개발하려면 학습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교재 개발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재의 전체 구성과 단원 구성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교재를 편찬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교재에 대한 사용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등 교재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 성과를 보면 교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학습자 요구 분석을 단일 연구 주제로 삼은 연구는 김정우(2004) 한 편 밖에 없고 교재 개발, 사용 소감에 대한 소개는 유춘희(2001), 김영희(2007) 두 편만을 발견했다.

---

논의가 기존 교재 내용에 대한 분석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재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넷째, 이상의 연구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체계성과 참신성, 그리고 심도 있는 논문들이 있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세밀한 연구 토대 없이 이루어져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교재 개발에 적용하기 어려운 몇 가지 막연한 개발 방향만을 제시하여 공연한 담론에 그친 논문도 있다.

교재 개발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없이, 개발에 착수하자마자 완성하여, 한국어교육현장에 보급한 교재는 결국 교재 사용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가 없다. 그럼 교재 개발론 연구를 무엇부터 해야 할까? 향후 교재 개발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좋은 교재, 한국어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 개발을 위한 첫 걸음은 교재의 사용자인 학습자와 교사들의 요구와 비판을 듣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요를 장기, 수시 설문 조사나 강의 평가를 통해 수시로 수집하고 교재를 직접 가르쳐 본 교사의 의견을 설문 조사나 면담을 통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교재 개발 원리나 구성 원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나왔지만, 학습 변인이나 교수 변인을 충분히 반영한 교재의 개발 원리와 단원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교재 편찬자들의 교재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보다 더 발전된 교재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교재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교재 개발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소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나온 91 편의 한국어 교재 연구 논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연구의 주된 흐름과 특징을 정리해보고 교재 유형론, 교재 평가론 그리고 교재 개발론 세 개 하위 영역으로 나눠서 각 영역별 교재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약 백 편의 교재론 연구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어 교재 연구에 대한 총체적 정리와 평가가 나오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150여 권 학회 자료집, 학회지나 기관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하여 뽑은 교재론 연구 목록은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역별 교재론 연구에 대한 분석과 제안은 향후 한국어 교재 연구의 진행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연구자 개인적 인식과 역량의 부족, 그리고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선행 연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교재 연구의 특징, 그리고 향후 적절한 제안을 심도 있게 풀어내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논문에서 다룬 내용 중에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이론적인 허점이 여러 군데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제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부디 본 연구자의 이 미약한 연구가 한국어 교재 연구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인식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은 일천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영민(2005). 교재의 구성과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론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9~238 쪽.
- 김중섭(2005). 교재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7~218 쪽.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 쪽.
- 박갑수(2002). 한국어 교재 개발 원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3~36 쪽.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88 쪽.
-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왕 단(2008).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Journal of Korean Culture 12, 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 33~71 쪽.
- 이지영(2004).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지영(2005). 교재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5~206 쪽.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9~278 쪽.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9~284 쪽.

\*\* 본문의 연구 대상 목록에 수록된 91 편 논문은 참고 문헌에서 생략한다.